

# 무등산 자락에 9월 매화 만개 “종구나~”



김정욱 작 '대화무늬 방패연'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 의재미술관, 디자인비엔날레 장의특별전시 '공예와 디자인' 무등현대미술관, 서양화가 박혜순씨 '몽(夢)-미산(眉山)'전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한창이다. 하지만 관람객들이 비엔날레전시관에만 집중, 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9월에 무등산 자락에 피어난 매화를 놓치고 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유일한 장외 전시로 의재미술관에서 진행중인 '9월에 매화'전이다.

9월에 핀 매화를 즐기기 위해 의재미술관을 찾았다면 인근 중심사 지구 미술관과 갤러리, 전통문화관이 의재미술관과 무등산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디자인과 미술, 전통 공예까지 문화향기가 가득하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의재미술관에서 열리는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획전 '9월에 매화'는 광주만의 멋과 숨겨져 돌보이지 않았던 공예전이다. 광주만의 품격 있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로, 우리의 전통 공예에 지역 한국화가인 허달재씨의 매화가 수놓아진 다양한 공예품이 전시되고 있다.

국내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인 손혜원씨가 남구 공예 창작촌 입주 작가 등을 비롯해 지역 20여명의 공예가와 서울 지역 공예가 6명과 함께 준비한 전시다.

26명 공예가는 도자기, 부채, 연, 목공예, 칠공예, 금속공예, 한지공예, 섬유공예 등에 직한 허달재 화백의 매화 그림을 소재로 다양한 공예 세계를 펼쳐냈다. 한국화와 공예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공예품의 개발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고려해 기획됐다. 벌써 나전칠기 등 일부 작품들이 상당수 팔리기도 했다. 또 양산, 등(燈), 스카프 등 10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과 공예가 황수경씨의 10만~15만원 대 누비이불을 비롯해 공예가 우영희씨의 바느질 조각보와 청사초롱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입장료는 2000원으로, 디자인비엔날레 티켓이 있으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222-3040.

허달재 화백 매화그림 소재로

작가 26명 전통공예작품 전시

전통문화관, 매주 토·일 전통공연

갤러리 생각상자, 리일천 사진전

의재미술관을 내려오면서 무등현대미술관에 들려보자. 무등현대미술관에서는 10월1~15일 서양화가 박혜순씨를 초대해 '몽(夢)-미산(眉山)'전을 연다.

작가는 현재 살고 있는 강진청자박물관 일대 미산 마을을 모티브로 서정적 풍경을 원숙한 색으로 담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절제된 대생 위에 생생한 색을 입힌 화화 작품 외에도 테라코타 등 모두 3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진로탐색 프로그램-미술관 JOB GO, 꿈 JOB GO!'도 진행된다. 청소년들에게 미술관 전문직에 대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이 미술관을 찾아 미술관 속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www.mdmoca.com)로 하면 된다. 문의 062-223-6677.

무등현대미술관 맞은편 광주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통공연을 만날 수 있다. 오는 28일과 29일에는 가야금병창대제전이 열린다. 28일 열리는 '2013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 전야제 축하공연'에서는 2012 대한민국 가야금대축제 대상을 받은 이영은씨의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가야금병창), 조흥달씨의 흥보가 중 '화조장' 대목(판소리), KBS 국악대상을 받은 윤소인씨의 적벽가 중 '화룡도'(가야금병창) 등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생각상자에서는 오는 10월8일까지 수년째 지역 미술인들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해오고 있는 사진작가 리일천씨의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리씨는 '공(空)-오래된 기억과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 불교의 공(空) 사상을 사진작업에 도입한 독특한 영감을 선보인다. 문의 060-676-898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채유희 작 '매화 프린트 원단 외'.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 25일 광주문화포럼 세번째 강좌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이사



“최근 글로벌 미술계는 시장만 존재하고 시장을 건강하게 끌고 가는 비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미래는 무엇인가.”

광주일보사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광주 문화포럼' 세 번째 강좌가 25일 오후 2시~4시까지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3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전시기획자이자 비평가인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이사(사진)가 강사로 나서 '예술 자본주의의 비평'을 주제로 예술자본주의와 상대적으로 피폐해진 미술비평의 현재를 진단하고, 예술창작과 미술시장 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진흥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이 대표이사는 정형화된 지역양식이나 집단적 시대패턴에서 벗어나 독자적 예술세계를 활발히 펼쳐가는 요즘의 미술현장에서 상품화된 재화까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작가들에게 객관적인 시야와 현실적 조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고려대 교수, 뉴욕 매체예술센터 관장, 제5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열음사), '비디오예술론'(문예마당) 등이 있다. 문의 062-608-424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인문학으로 문화읽기' 일곱번째

내일 영화평론가 유지나 교수 초청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영화평론가 유지나 동국대 교수(사진)를 초대해 상록 문화강좌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 일곱 번째 강좌를 진행한다.

유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호모루덴스, 예술의 힘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삶의 즐거움을 주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유희와 놀이로서 사람은 좀 더 귀하게 되고 놀이 문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스크린쿼터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제21회 청룡영화상 영화평론상, 프랑스 학술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613-71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세기를 넘어... 클래식 여행

광주시향, 27일 패밀리 콘서트

광주시향교향악단이 '세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패밀리 콘서트를 갖는다. 27일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동중인 민정기씨가 객원지휘를 맡은 이번 연주회에서는 고전, 낭만, 근대, 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나본다.

첫 곡은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 1번. 이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64'를 하마오 후지와라의 협연으로 감상한다. 퀴엘리자베스 롱쿠르, 파가니니 롱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린 하마오 후지와라는 줄리어드 음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일본 도호 음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스트라빈스키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협주곡'은 덴마크 출신 피아니스트 오스카 미카엘슨이 협연한다. 코렌하겐 로얄 덴마크 음악원에서



오스카 미카엘슨, 하마오 후지와라

수학중인 그는 특히 스트라빈스키 연주로 두각을 나타낸 피아니스트다.

그밖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곡가 박-관 영희의 '고운남'도 연주된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Feel the Difference

**던롭침대 & 온열/안마침대**

**소파 앤틱/모던**

**식탁/TV장**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1899-0240